

‘3고’·중동사태 장기화...‘소분 모임’ 뜬다

식비 부담에 커뮤니티서 생활비 절감 대응 나서 식재료·음식·생활용품 등 실용적 소비행태 변화

#1 광주 북구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A씨는 최근 지인과 함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모임은 일명 ‘소분모임’으로 묶음으로만 판매되는 식품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A씨는 “밥값 부담이 하루하루 너무 커지고 있다. 그나마 대용량 상품을 모임 인원과 나눠 먹으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2 40대 주부 B씨는 최근 요리 재료 소분 모임에 가입했다. 최근 식재료 값이 경중 뛰면서 반찬을 준비하는 주부 입장에서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모임에 참여하며 회원들과 식품을 비롯해 장바구니 물건을 맞추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3고(高)’ 영향과 중동 사태 장기화에 지출을 줄이려는 서민들이 실질적 대응에 나섰다. 식사 값부터 대용량 식재료를 구매해 인근 주민들과 필요한 만큼 나누는 등 다양한 ‘소분 모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27일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5,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0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 대비 광주 116.57, 전남 117.41로 각 2.28%, 2.49% 상승했다.

특히 외식 등이 포함된 음식·숙박 물가는 지난해(광주 124.0·전남 122.44) 대비 올해(광주 128.04·전남 125.18)로 광주는 4.04%, 전남은 2.74%로 상승세를 보이며 체감 물가 부담은 높은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서민들은 식비 부담을 줄이려는 실용적 소비 행태를 찾아가고 있다.

대용량 판매 물품을 함께 사서 나누거나 식당 음식 메뉴까지 나누는 모임 등 식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사람을 모 집하거나 개인이 산 제품을 나눠 참여자를 찾는 모습도 있다.

실제 지역 커뮤니티에는 수십여개의 식재료를 비롯해 배달 음식,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분 모임이 개설돼 있다.

모임에는 “평상시 농수산물 시장 또는 대형마트 선호 하다 보니 물품을 대량 구매했는데 물가가 많이 오를 시기 서로 나눠 하면 좋을 것 같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함께 보고 같이 소분해서 구매하자” 등의 글이 게시돼 있었다.

특히 소분 모임이 고물가 장기화 속 실

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위한 서민층의 소비분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용 경제학 박사는 “소분 모임 등이 활성화되는 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에 적응하려는 서민들의 능동적 대처로 보여진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가격에 민감해지고 소량·저가 중심 소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유통성 기자 yo140@gwangnam.co.kr

올 여름, 이마트서 반값으로 제철과일·가전 등 파격 특가

이마트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수박, 참외, 자연산 광어 등 제철 먹거리부터 29만원대 반값 에어컨 등 여름 필수 가전·용품까지 다가오는 여름을 반값에 준비할 수 있는 ‘고래잇 페이스’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이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여름 대표 과일 수박과 참외를 파격적인 혜택가로 역대급 물량을 쏟아낸다.

수박은 한여름 성수기 수준을 뛰어넘는 20만통 물량을 전격 투입하고, 최대 40% 할인한 특가에 선보인다.

또 본격적인 출하를 맞아 아삭한 식감과 향긋한 과즙이 정점에 달한 성주 참외도 알뜰하게 만나볼 수 있다.

가전제품도 초특가에 선보인다. ‘쿠쿠 벽걸이 에어컨’은 행사카드 전액 결제 시, 반값 할인된 29만9500원에 선보인다.

실외기 포함은 물론 배송비와 기본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한 파격적인 혜택으로 1500대 선착순 판매한다.

냉감 차림이불부터 냉감 패드, 베개, 쿠션까지 시원한 클링 베딩용품 전 품목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40% 할인가에 판매한다.

오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자연산 광어도 반값에 선보인다.

이밖에도 활전복, 대게 등 인기 수산물을 비롯해 한우, 삼겹살 등 식탁 필수 먹거리도 반값 할인이 이어진다.

유통성 기자 yo140@gwangnam.co.kr



싱가포르 혼든 K-푸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최근 싱가포르 엑스포(Singapore Expo)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식품·음료 산업 박람회 중 하나인 'FHA Food&Beverage 2026'에 참가해 K-푸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광주상의, 통합시장 후보에 ‘지역 10대 정책’ 제안

산업·에너지·교통·문화 아우른 초광역 성장전략 제시

광주상공회의소는 민선 9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들에게 ‘지역발전 10대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정당에 순차 전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최근 지역 기업인 의견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엔지니어링 부재, 청년 인재 유출, 에너지 비용 부담, 문화·정주 인프라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로 정책을 구성했다. 우선 최우선 과제로 ‘청년이 모여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초광역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광주권·동부권·서부권을 3대 성장축으로 설정하고 약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을 기업 유치와 관광 인프라 확충, 미래산업 기반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저비용 공급체계 구축 및 송·배전망 확충’을 제안했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이전 부지를 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및 대기업 유치 전략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대형 테마파크 유치와 무등산국립공원 중심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제안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재추진과 광주~화순 노선 신설, 달빛철도 사업의 조속 추진 등 광역 경제권 형성과 도시 공간 재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대용 기자

SKT, 고객만족도 이동전화 부문 29년 연속 1위 한국생산성본부 선정...국내 유일 기록 달성

SK텔레콤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2026년 NCSI 조사에서 이동전화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NCSI가 국내에 도입된 1998년 이후 29년간 단 한 해도 빠짐없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국내 전체 산업군을 통틀어도 SK텔레콤이 유일하다.

SK텔레콤은 29년 연속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AI 중심 통신 서비스 개선 노력과 함께, 지난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의 고객 보호 및 네트워크 보안 강화 노력, 고객 신뢰 회복 활동 등이

인정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올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현장 소통’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CEO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고객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개선점을 발굴해 상품·서비스뿐 아니라 유통망, 콜센터 등 고객 접점에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AI를 활용한 네트워크 보안 강화,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기술 고도화 등 고객 보호 노력에서도 높은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제주항공, 가족 체험 이벤트 확대 ‘눈길’

기내 사연 이벤트·산리오 캐릭터 팝업스토어 운영

제주항공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해 나섰다.

제주항공은 5월 1일부터 8일까지 전 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구름 사이 한마디’ 기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나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참여는 5월 6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된 사연은 실제 항공편 기내 방송으로 소개되며, 당첨자에게는 제주항

공과 산리오 캐릭터즈 협업 굿즈가 제공된다. 오프라인 체험도 마련된다. 제주항공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주신화월드에서 ‘제주항공X산리오 캐릭터즈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현장에는 포토존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구성된다. 어린이날인 5월 5일에는 굿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페이스 페인팅, 어린이 유니폼 체험 등 가족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중캠페인

운전할 땐 안전벨트
안전거리·전방주시·벨트착용

